

아프간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정길 위원장.


정토회 에코붓다 도반들과 함께(윗줄 우측 두번째 법륜 스님).

# “환경, 우리 삶의 문제… 나를 바꿔야”

**환경과 만나다**

**정토회 불교사회교육원 사무국장**
**법륜 스님의 권유로 ‘환경’ 공부**
**공양주 소임 자청 새로운 모색**
**아프칸 긴급구호 현지 팀장 파견**
**2001년 불교환경연대 창립 선봉**
**2016년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 ‘유정길 운영위원장’

B1면에서 계속

### 다시 만난 불교, 정토회 시작

1년 동안의 옥고를 치른 유 위원장은 어느 날 우연히 소림선원 시절의 인연을 만난다. 그는 여전히 법륜 스님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법륜 스님은 소림선원을 나와 서울 비원 근처에 포교원을 열었다. 비원포교원이다. 유 위원장은 비원포교원과 다시 인연을 이어간다. 비원포교원은 대학생불교회 학생들을 위한 불교 교재를 만들고 있었다. 교리교육의 지침서인 〈실천적불교사상〉이었다. 유 위원장은 교재의 편집에 동참하면서 다시 많은 불교공부를 하게 된다.

1988년 1월, 비원포교원은 홍제동으로 자리를 옮겨 정토포교원을 개원하고 중앙불교교육원을 설립한다. 3월과 4월에 불교사회교육원과 불교사회연구소를 열면서 정토회가 시작된다. 유 위원장은 불교사회교육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민족불교학당, 민족여성학교, 민족문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교를 바탕으로 한 불교사회교육을 담당했다. 당시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대대적인 사회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을 때였다.

유 위원장이 담당했던 불교사회교육은 일반사회교육과는 결을 달리 하는 것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교육이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노동관, 여성관, 인권 등을 말한다.

### 폐문정진, ‘환경’과 만나다

1990년 사회주의의 붕괴는 사회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유 위원장이 이끌고 있었던 불교사회교육원을 비롯한 모든 정토회 모임들은 내부적으로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을 느끼고 3년여의 폐문정진에 들어간다.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모든 교육과 실천들을 시대에 맞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서 각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주변의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다. 사회단체의 노선변경은 배신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토회 모임들은 대학생불교회, 불교청년회, 불교사회운동단체 등의 지원사업 등 모든 활동과 교육을 중단하고 불교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친 모색의 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그때 많은 공부를 시작했어요. 인문학에서부터 과학, 사회학 등 각자 자신의 분야를 찾아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게 맡겨진 숙제가 ‘환경’이었어요.”

유 위원장은 이때 환경의 문제에 눈뜨기 시작한다. 법륜 스님의 부촉이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환경이라는 분야가 그다지 내키지 않았다. 당시 시대적 흐름에서 환경은 노동이나 인권, 평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변방의 이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 위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환경의 문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환경문제,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고, 또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인류가 지향해온 발전과 개발, 진화 등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집는, 패러다임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 경제성장,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 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된 지상목표가 완전히 난센스라는 것이죠. 환경문제가 주는 메시지는 한정된 자원에서 무한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무명이자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과 실천의 과보가 ‘환경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유 위원장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실천들이 무명과 미혹에서 출발한 잘못된 실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환경문제가 던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발전과 개발 방식으로는 더 이상 발전과 진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환경문제가 자연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지향해야 할 발전과 개발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 가지의 화두가 도출됐다. ‘좋은 생산력은 무엇일까’, ‘좋은 생산관계는 무엇일까’, ‘좋은 인간관계는 무엇일까’,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였다. 답은 부처님 말씀 중에 있었다. 그 동안의 실천은 ‘너’를 바꾸라는 것이었다. 새로운 답은 ‘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천은 ‘우리가 먼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였다. 그 동안 밖을 향해서 던졌던 목소리를 안으로 들여온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경’이었다. 1993년 9월, 정토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만일결사’에 들어간다. 유 위원장이 이끌었던 불교사회교육원은 불교환경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생태학교’라는 이름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다. 그리고 1999년 ‘에코붓다’로 다시 한 번 그 이름을 바꾼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작된 정토회는 북한동포 돕기, 쓰레기 제로 운동, 아프칸 지원사업, 빈그릇 운동, 4대강 살리기 24시간 릴레이 기도 등 많은 사회적 이슈를 이끌며 새로운 사회, 올바른 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을 이어갔다.

### 정토회 밖으로

유 위원장은 2001년부터 정토회 공양주 소임을 맡는다. 또 한 번의 새로운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2002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내전이 끝난 아프카니스탄의 긴급구호와 개발지원사업을 위해 카불 지원팀장으로 파견되어 2005년 8월까지 구호와 마을개발지원활동을 펼친다. 아프칸에서 복귀한 유 위운장은 가난한 나라에 대한 긴급구호활동과 개발협력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한국정부의 ODA정책에 대한 논문, 발표, 강연. 토론등의 활동을 이어가며 불교내의 해외개발NGO들의 활동을 돕고 설립을 지원하고 개발구호의 실천적 이론을 개발 학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2005년 8월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정토회 법륜 스님이 주도하여 설립한 동북아의 평화와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정책연구 민간기구 ‘평화재단’의 기획실장으로 활동했다.

유 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얻은 깊은 지병으로 2010년 요양을 위해 정토회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필요로하는 곳에 잘 쓰이는 것이 보살의 삶”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여러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한살림 마음살림위원회,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 국민농업포럼, 지역아동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지혜공유협동조합 등이다.

### 다시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운동의 중심이었던 불교환경연대는 2010년 수경 스님의 칩거로 침체기를 맞는다. 2015년 9월, 칩거 중이었던 수경 스님은 침체된 불교환경연대가 더 이상 가라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수경 스님의 생각 속에는 유정길이 있었다. 그가 맡아야 할 직책은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2016년 조직을 정비한 불교환경연대는 새롭게 시작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으로 함께한다.

“그 동안 불교환경연대가 사회적 문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불교 자체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복귀한 유 위원장은 회원 수를 늘리는 등 불교환경연대의 복원과 더불어 불교자체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기 시작했다. 생명살림 실천운동, 녹색불교 만들기 운동 등의 커다란 실천 속에서 숲과 국립공원 지키기, 강살리기 방생운동, 녹색사찰 만들기, 사찰숲생태활동, 생명살림 생활실천, 환경법회, 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이 모든 실천은 유 위원장이 새롭게 눈 뜬 ‘환경’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된다. 먼 길을 돌아 자신이 만들고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온 유 위원장의 앞으로의 계획은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불교환경연대의 활동에 마음을 모아주십시오”였다. 불교환경연대 사무실의 모든 사무가구는 녹색이었다. 몸속까지 녹색일 것 같은 유 위원장의 합장한 두 손에서 녹색의 내일을 본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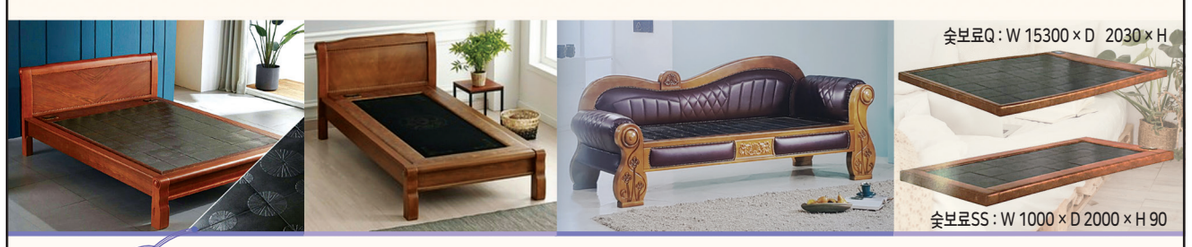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